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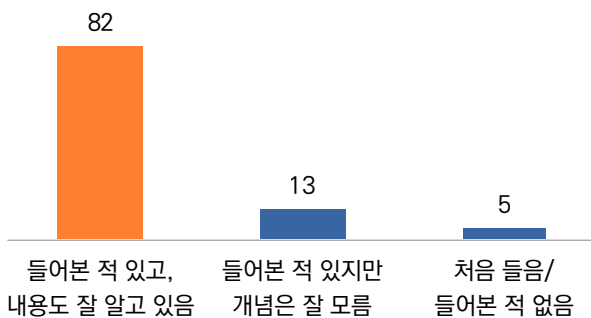


[수저계급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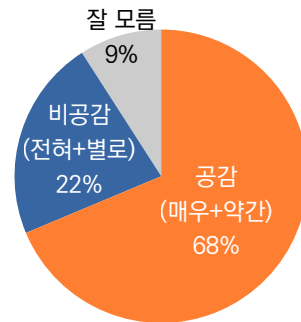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68%), 부모 재력에 따른 ‘수저계급론’에 공감!

-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말이 되고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된다는 씁쓸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재력·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수저계급론을 알고 있는지 묻은 결과(엠브레인),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2%로 국민 대부분은 수저계급론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 수저계급론에 공감(매우+약간)하는 비율 또한 국민 10명 중 7명(68%)으로 비공감(22%)보다 3배 정도 높아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수저계급론* 인지 여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



[그림] 수저계급론 공감 여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수저계급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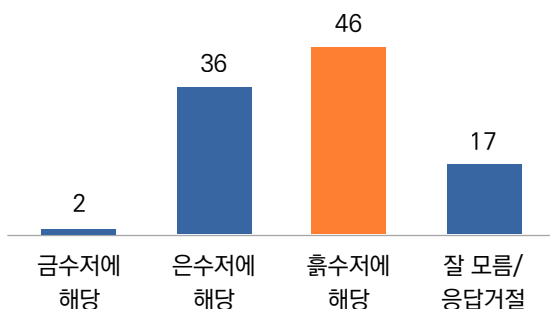
수저계급론이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은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것을 뜻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국민 절반 가까이, 나는 ‘흙수저에 해당’!

- 국민 스스로 자신의 수저계급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가 본인을 ‘흙수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저에 해당’ 비율은 36%, ‘금수저 해당’은 2%에 불과했다.

[그림] 수저계급 자가 평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N=1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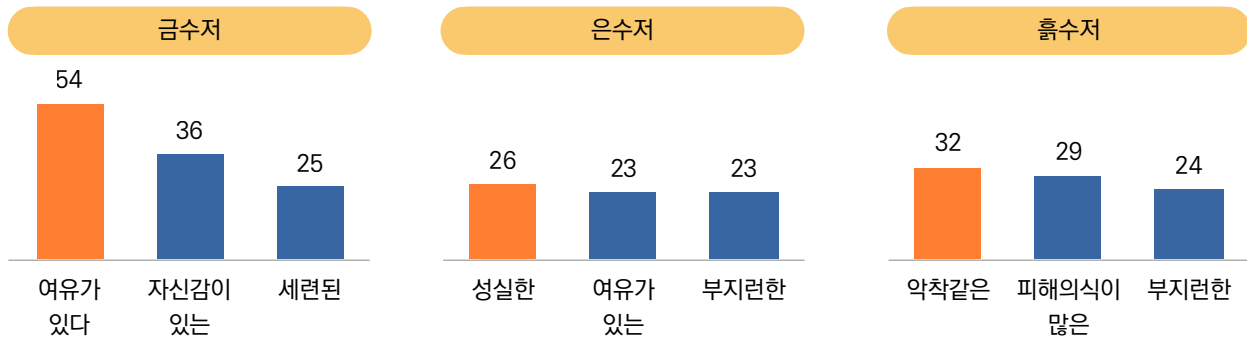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금수저는 ‘여유’, 은수저는 ‘성실’, 흙수저는 ‘악착같은’!

- 각 수저계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금수저’는 ‘여유가 있는’(54%)이 절반을 넘으며 가장 높았고, ‘자신감 있는’(36%), ‘세련된’(25%)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은수저’ 역시 ‘성실한’(26%), ‘여유가 있는’(23%), ‘부지런한’(23%) 등 긍정적 이미지를 주로 떠올렸다.
- 반면 ‘흙수저’의 경우 10명 중 3명 정도가 ‘피해의식이 많은’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연상 이미지 (2026, 만 13~69세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3개, N=1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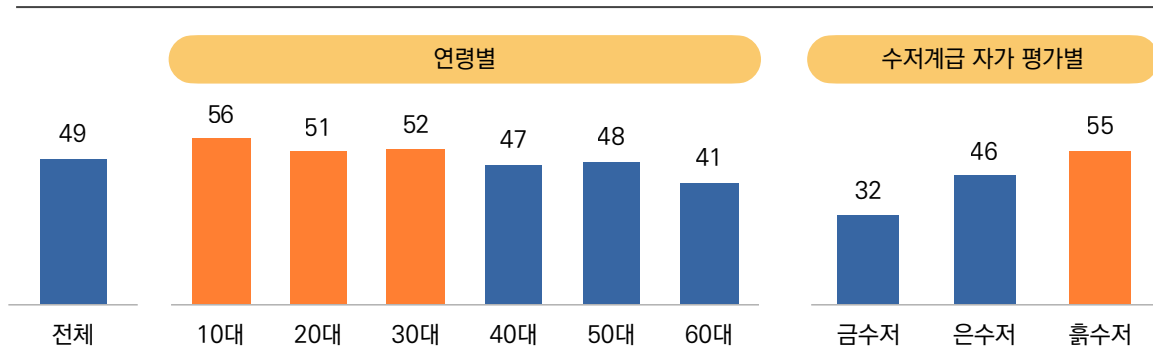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30대 이하 젊은 층 절반 이상, ‘금수저의 재력 동경’!

- 금수저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금수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재력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항목에 절반가량(49%)이 동의(매우+약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30대까지 젊은 연령층(51~56%)과 자신의 수저계급을 ‘흙수저’(55%)라 인식한 그룹에서 금수저의 삶을 선망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금수저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26, 매우+약간 그렇다*, N=1200, %)

나는 소위 금수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재력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 수저계급론 관련 인식 조사, 2026.08.11.(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 온라인 조사, 2026.07.13.~2026.07.16.)

*5점 척도